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문의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배상률 부연구위원
전화: (044) 415 - 2220
팩스: (044) 415 - 2369
drbai@nypi.re.kr www.nypi.re.kr

감수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국문판 제작



감수



115

사례연구

ERIC의 핵심목표 중 하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윤리적 사안에 대한 이야기, 경험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기여로 이뤄진 사례연구는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렵고 경쟁적인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7장 사례연구는 다양한 국제적 상황과 여러 다른 연구 패러다임을 모두 반영하며, 아동 연구에 대한 사고를 발전시키고 윤리적 관행을 개선하도록 구성했다.

주제	사진 묘사	캡션
연구의 위험 및 혜택	연구 참가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역 공동체 사람이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묻는 모습을 담은 사진	저는 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얻게 될 위험과 혜택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의 문서화	녹음기 사진	만일 저의 목소리가 녹음되면 그 카세트 테이프는 비밀리에 보관될 것이고 저의 사진이 찍히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녹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진 찍히는 것에 동의합니다.
참여의 자발성	워크숍을 떠나며 누군가가 손을 흔들고 있는 사진. 연구자와 다른 참가자들은 확실히, 친근한 미소를 띠고 있다.	이 연구 안에서 저의 역할은 자발적입니다.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알게 된 느낌	연구 참가자들이 연구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사진	저는 이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질문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기	동의서를 손에 들고 동의의 표시로 연구자와 악수하고 있는 연구 참가자의 사진	이 양식에 서명하면 저는 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정보	사진 없음	날짜: EFA 직원: 참가자 이름: 분류(노인, 청소년 등): 지역:
서명	사진 없음. 지장을 받기 위해 서명란은 여백을 넉넉하게 남겨 뒀다.	서명됨: 연구자 EFA 직원 참가자

사례연구 14: 탄자니아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할 때 실제적인 윤리적 문제 대처

연구배경:

본 사례는 최근에 진행된 “탄자니아의 아동이 어떤 보살핌을 받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를 묘사한다.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 가족들이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관례들을 조사했으며, 다양한 부족, 생활 환경 그리고 지역적으로 집단을 묶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 연구는 한 국제 NGO로부터 의뢰된 것으로, 경험이 많은 연구자가 연구의 설계, 데이터 분석 그리고 보고서 작성을 보조했다. 연구가 진행된 지역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수집했다. 기술지원과 현장의 과정은 아동 권리 변호사들과 정성조사 경험은 별로 없지만 아동 발달과 탄자니아 아동이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 상당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는 놀이 치료사가 맡았다. 양쪽 모두 연구에 임하기 전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아동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실제로 수집되는 자료와 아동의 이야기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임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자 어린 아동들이 무엇을 알고 있을지에 대한 일차적인 가정을 염두에 뒀다.

윤리적 문제:

윤리적 도전 과제는 윤리적인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과 기술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잠재돼 있었다. 연구팀은 연구 대상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 의논하고, 예상 시나리오를 조정해 부양자의 적개심을 누그러뜨리고, 아동과 그들의 부양자들로부터 사전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선택한 사안들을 검토했다. 이 연구를 설계하면서 어린 아동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들였다. 하지만 연구 설계에 설정된 기준들이 현장 연구에서도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왜 의도한 바와 실행하는 바가 다를까?

선택방법:

- 아동 보호에 대한 공식적인 서약을 했는가?

데이터 수집가들은 아동 보호가 연구 설계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겠다는 어떠한 서약도 하지 않았다. 아동 보호는 데이터 수집가들이 교육받는 동안 비공식적으로 논의됐고, 아동 보호자와는 초기 모임에서만 다뤄졌다. 관행적으로, 많은 연구자와 연구 참가자들이 공식적인 지침을 따르겠다는 성명의 가치를 모른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에게 지워지는 실질적인 책임도 없고, 연구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참가자들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없기 때문이다.

- 접근을 위한 협상과 예상 기대 조정하기

가난한 지역 공동체에 온 연구자들은 감시 대상이 되거나, 정부에서 파견된 직원 내지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중재자로 인식된다(Ebrahim, 2010; Morrow, 2009). 따라서 지역 공동체가 지나친 기대를 갖지 않도록 시간을 들여 연구 목적과 연구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측면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지역 공동체 및 아동과의 연구에는 힘의 균형에 문제가 존재한다. 윤리적 불균형(Christensen & Prout, 2002)은 사회적·경제적 권력을 모두 지닌 전문가와 외부인이 가난한 연구 참가자와 소통할 때 일어나며, 아동이 연구 대상이 되고 연령에 따른 힘의 차이가 강조될 때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더 심화된다.

모든 성인 참가자들은 아동이 연구 결과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위원회 조직이 옹호하는 계획을 전달하는 정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아 성인들의 기대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수 없었고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다.

연구 설계 과정에서는 아동의 사회적·문화적 지위를 고려하면서 힘의 불균형을 낮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Bergstrom, Jonsson & Shanahan, 2010). 1차 데이터 수집가로는 공동체 안에서 조기발달 교육을 아동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택했다. 지역 공동체 내의 아동과 부모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연구팀은 먼저 정치 및 전통적인 지도계층과 인근 지역에 사는 부모들을 만났다(Ebrahim, 2010).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참가자 모집에서 어려움보다는 더 많은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참가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접근하는 데에 든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는 지역 공동체 리더를 이용해 참가자들을 동원해야 했기 때문이다.

• 동의 얻기

연구 초기에 성인과 아동이 연구에 동의하는 일회적 동의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상황에 따라 여러 번 동의를 구해야 하는 반복적 동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Simons & Usher, 2000). 이러한 사실은 데이터 수집가에게 여러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연구 대상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연구 대상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하고, 연구 대상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하거나 특정 연구 활동에 불참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 데이터 수집가들은 첫 그룹 미팅에서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동 보호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보호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이때 뿐이었다. 초기 연구 설계에 제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수집가들은 참가자들이 인터뷰 준비를 위해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기술지원자와 데이터 수집가들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 계획했던 것과 실제로 진행된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벌어졌다. 데이터 수집가들은 그들이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매일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설계된 절차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연구 실행의 단계적인 부분만 고려하는 데 그쳤고, 참가자들과 대화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태도, 비언어적 신호,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잠재적인 저항의 원인, 그리고 데이터 수집가와 참가자들 사이의 힘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성찰적인 실천을 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부분적으로 연구의 구조적인 설계에 있었다. 서로 다른 기대와 기술, 그리고 능력을 보유한 여러 단체들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가장 꼭대기에는 연구를 의뢰한 위원회 조직이 있었다. 이 조직에게 중요한 것은 연구 참가자들과 관계를 쌓기 위해 거쳐야 할 윤리적인 과정보다는, 궁극적인 연구 결과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계였다. 연구자로서 천천히, 자신의 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성찰해야 하는 윤리적 연구에는 많은 긴장되는 순간들을 경험한다. NGO와 직원들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주장하는 가치들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아동들과 소통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동과 교류할 때 자신의 태도를 매우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래서 NGO 직원들은 아동의 옹호자 및 보호자 역할을 버리고, 훈련된 질적 연구와 실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성찰적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아동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깊이 있게 경청해, 아동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미성숙하고 부분적으로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 결과적으로 윤리적 연구자가 마주할 문제들은 연구를 의뢰하는 단체와 계약하는 순간부터, 윤리적인 연구가 좋은 연구라는 공유된 기대들을 양성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연구 관계자는 연구 초기부터 윤리적인 연구 설계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 성찰이 필요한 윤리적인 연구에 임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체가 연구에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훈련하는 것이 현장 연구를 진행하고 데이터 분석이나 연구 보고서를 쓰는 것만큼이나 연구의 성공과 최종적인 연구 결과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참가자의 수가 많아지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수록, 성찰이 필요한 윤리적인 연구에 대한 공유된 이해, 책무와 실천을 쌓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Bergström, K., Jonsson, L., & Shanahan, H. (2010). Children as co-researchers voicing their preferences in foods and eating: methodological refle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4, 183-189. doi: 10.1111/j.1470-6431.2009.00843.x

Christensen, P. & Prout, A. (2002). Working with ethical symmetry in social research with children. *Childhood*, 9 (4), 447 - 497. doi: 10.1177/0907568202009004007

Ebrahim, H. (2010). Situated ethics: Possibilities for young children as research participants in the South African context. *Early Child Development & Care*, 180, 289-298.

Morrow, V. (2009). *The ethics of social research with children and families in Young Lives: Practical experiences*. Oxford: Young Lives Research Project.

Simons, H., & Usher, R. (2000). *Situated ethics in educational research*. New York, NY: RoutledgeFalmer.

자료제공: Kate McAlpine; Facilitator. Coach. Researcher. Lead Strategist of Caucus for Children's Rights, Tanzania.

사례연구 15: 지속적인 동의의 문제

연구배경:

장애 아동들을 참여시키는 문화기술적 또는 현장 기반 연구에서 사전 동意的 개념은 연구자가 참가자들의 다양한 정보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본 사례연구는 학교 기반 연구로서 1년 이상 동일한 학생 그룹(11-12세)과 상당한 시간을 보낸 연구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학생 중 몇 명은 학교와 학급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관찰했다. 본 연구에는 뉴질랜드의 일반 학교에서 장애 학생 7명과 연구자 4명이 참여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발 행 2014년 12월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쇄처 아르빛

사전 승인 없이 본 간행물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44) 415-21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술정보관)